



내 생애
마지막 사랑여행 이야기

서울 / 徐鐘星



#1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문삼석 시인의 童詩 「그냥」이다.

#2

나 죽도록
너를 사랑했건만,
죽지 않았네.
내 사랑 고만큼 모자랐던 것이다.
박철 시인의 「사랑」이란 詩이다.

#3

일본의 한 대형출판사에서 뒷방부서인 사전편집부에 공석이 생기자, '오른쪽을 설명하라'는 질문에 '서쪽을 보고 싶을 때 북쪽에 해당하는 쪽'이라고 답하는 영업부의 왕따 마지막이 스카우트된다. 사전팀에 합류한 마지막은 현대 일본인이 쓰는 모든 단어를 포함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으로 15년에 걸쳐 '大渡海'사전을 편찬하는 작업에 전념한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종이사전이 필요 없다며 사전출판을 중지하려는 경영진의 결정에 부딪히고, 교정 작업 막바지에 단어

하나가 빠진 사실을 발견하여 위기를 맞고, 동료직원에게 닥친 슬픔에 휘청이기도 하지만 마지막은 진심과 성실로써 결국 사전을 만들어낸다.

인생의 기쁨만큼이나 슬픔과 난관에도 그리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고 담담하

게 받아 드리며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지막을 통해 '당신은, 진심을 다해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고 있느냐?'라는 메시지를 던진다. 일본 여류작가 미우라 시온의 소설 『배를 엮다』를 영화화한 작품이다.

일본영화 <행복한 사전>을 본 나의 소감이다.

#4

지난 2월 중순 <행복한 사전>을 관람하고, 잔잔한 감동의 여운을 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문득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바뤼흐 스피노자의 말이 떠올랐다. 스피노자의 말을 되새기다가 생뚱맞게 내일이 나에게 이승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에 생각이 미쳤다. 죽음을 하루 앞두고 하지 않고 죽는다면 절대 후회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한 상념과 숙고 끝에 그것은 욕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삶의 가치를 보태는 일이라고 결론을 짓고 흔쾌히 '사랑하기'를 선택했다. 親疎遠近, 생명유무, 時空, 빈부귀천, 美醜好惡를 초월한 삼라만상을 사랑하리라!

이런 연유로 내 생애 최후의 날을 2014년 2월 0일로 상정하고 '사랑하기' 여행길에 올랐다. 떠나기에 앞서 나를 품어준 대자연을 사랑하자. 내가 두 발로 딛고서서 두 팔을 벌려 숨 쉬고 보고 듣고 느끼게 해주는 땅과 물과 공중을 사랑하고 별들이 빛나도록 스스로 저물어 어두워지는 망망한 하늘을 사랑한다.

어릴 적 동네아이들에게 놀이터가 되어준 용마산 기슭의 아름드리 포구나무와 그 나무에 오르내리며 함께 놀았던 불알둥무들을 사랑하고 그때 궁금한 어린 입을 달래준 참꽃, 칩뿌리, 현채과 바꾼 풋복숭아와 찔피를 사랑한다. 지금도 달짝지근한 찔피를 맛볼 수 있을랑가 몰라.

청운의 뜻을 품고 파란셔츠와 썩색바지에 빨간 명찰을 달고 다닌 재기 발랄한 친구들과 목요일 등산에서 악의 없는 곱죽한 농담을 나누며 과안대소하는 중후한 마재 山友들을 사랑한다. 전후방과 베트남 전선에서 생사고락을 같이한 전우들과 호국의 열정이 뻗 철모와 전투복, 전투화를 사랑한다.

48m의 거리에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북한의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아프가니스탄의 '연을 쫓는 아이'와 눈이 썩하고 뼈가 앙상한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을 사랑한다.

『난중일기』의 이순신 삼도수군통제사와 김훈의 『칼의 노래』의 이순신, 최인훈의 『광장』의 이명준, 레프 톨스토이의 『부활』의 네플류도프,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의 알렉시스 조르바를 사랑한다. 장사익의 <낙화유수>, 김동진의 <목련화>,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서곡>을 사랑하고 신윤복의 <端午風情>, 이중섭의 <길 떠나는 가족>과 장 프랑수아 밀레의 <만종>을 사랑한다.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최은희와 <철도원>의 피에트로 제르미,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 헵번, <하이눈>의 게리 쿠퍼를 사랑한다.

스스로 자라서 피었다가 스스로 사라지는 들꽃과 머물었던 대지를 적시기 위해 이슬 한 방울 머금고 떨어진 낙엽을 사랑하고 청계산으로 탈출했다가 잡혀온 서울대공원의 말레이곰 '꼬마'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동물로 살다가 죽은 론섬 조지(에콰도르의 핀다섬에서 살았던 거북이)를 사랑한다.

가고 오는 이들이 애환을 나누는 삼거리 주막과 兩岸의 人情이 만나는 여울의 징검다리를 사랑하고 대청마루에서 청량하게 들리는 아낙네의 다듬이 소리와 병마개를 따고 첫 잔을 따를 때 술병에서 나는 소리를 사랑한다. 혼잡한 전철에서 특정 종교를 믿으라고 소리 지르는 盲信者를 사랑하고 觀梅鳥行 여객선 운항시간을 물었을 때 불친절하게 알려줘 나를 불쾌하게 한 해운회사 직원을 사랑한다.

김성탄의 「행복한 한때에 관한 33절」 과 안톤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을 사랑하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70 평생을 누리게 해준 부모님과 가족 그리고 나와 만나고 부딪히고 스친 모든 인연을 사랑하면서 하루의 여정을 마쳤다.

하지만 나의 사랑이 어찌 이 뿐이라! 다음날, 2014년 2월 0+1일의 아침 햇살은 여니 때보다 찬란하고 따사로웠다.

#5

'사랑'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상대의 매력에 끌려 열렬히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혹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또한 사랑은 '남을 돕고 이해하려는 마음'이란 뜻도 있다.

어린아이가 덜렁덜렁 걷다가 나무에 부딪혔을 때 '나도 이리 아픈데 나무는 얼마나 아플까'라고 생각하면서 나무의 뿌다구니에 '호~'하고 불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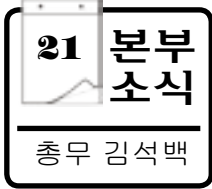
'사랑하다'와 '살다'라는 동사는 어원을 따라 올라가면 같은 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영어에서도 '살다(live)'와 '사랑하다(love)'는 철자 하나 차이이다. 꽃을 사랑하니 꽃밭을 가꾸고 술을 사랑하니 술잔을 기울이고 산을 사랑하니 등산을 하고... 이처럼 삶이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70년을 살아 왔다. 아니, 사랑해 왔다. 남은 황혼인생을 아름다운 노을로 장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썩은 만나고 부딪치고 스치는 모두를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리라. *

본부동창회 수입지출내역			2014년 2월		
수입		지출			
적요	금액	비고	적요	금액	비고
회비	1,050,000	김순택 김채열 배종길 송인창 이종섭 각15만 김순철 변종일 신창한 우용태 정창봉 황한균 각5만원	월례회	628,000	쌍용복집
			회보	210,000	인쇄
				68,700	발송
수리비	1,500,000	동창회사무실에어콘 및 리모델링			
광고	30,000	고정우(45기)	1월수입 착오금	220,000	전기용10만원 이아인7만 장정치5만원
			수당	150,000	총무
수입계	1,080,000		지출계	2,776,700	
전월이월	5,574,667		차기이월	3,877,967	
합계	6,654,667		합계	6,654,667	

원고접수 E-mail : chegal44@gmail.com



이 날은 총무가 직장관계일로 17시40분에 쌍용복집에 도착하니 벌써 38명의 동문들이 건강한 얼굴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시원한 복매운탕에 주거나 받거나 한잔들 하고 있는 모습에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18:10에 지 회장의 반가운 인사에 이어 총무전달사항에 부산김지남 동문의 별세 소식과 금일 고성거주 김문박 동문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다는 소식에 모두들 숙연한 마음으로 삼가조의를 표하다.

이어서 김용인 동창회사무실방장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창회사무실을 리모델링 겸 새에 어낀 구입 등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바둑이나 H.R 등으로 사무실을 자주 사용하는 사랑방 관리기금에서 150만원과 동창회 공금 150만원을 사용하자는 안건에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하다. 또한 서울동문들이 2/26부터 2/28일까지 여수힐링코스행사에 즉석으로 변재국 산악회장 외 4명이 참석하겠다는 결정에 서울동창들과 유대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뜻에 모두 공감을 표하다. 어느덧 18시30분경 동문들이 90년대 그 젊음의 패기가 벌써 세월의 나이 속에 묻혀 버리고 하나들 조용히 귀가하는 뒷모습을 보면서 다음 달 월례회 때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귀가하다.

참석자<43명>

곽영식 구해룡 김기정 김기태 김기현 김방태 김석백 김선규 김성규 김순철 김순택 김용인 김경수 김준형 김채열 김태욱 박소학 정정용 박종근 배복기 배종길 변재국 손기홍 손동개 송인창 신창한 여경현 우용태 이대우 이무일 이복렬 이성환 이아인 이영부 이종섭 이종량 장영의 전기용 정안정 정창봉 지해경 황한균 황희생


동문동정

♣ **곽호남 동문**
동문의새주소입니다.
우편번호 791-841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
(주)포스코건설 엔지니어링센터
선강사업부

♣ **김문박 동문**
지난 2월21일, 고성교육청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동문께서 지병으로 영면하였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김지남동문**
지난 2월11일, 동문께서 지병으로 영면하였습니다
고인을 기리는 많은 동문들이 분향하며 명복을 빌었습니다.

♣ **모교소식**
지난 2/12, 모교강당에서 제73회졸업식이 거행되어 서울 박필근 동문 외에 본부 지해경 회장과 김석백 총무가 참석하여 축하하였습니다.

 **祝結婚**
황동철 동문 김숙선 여사 의 차남 우현 군
새가정을 이루는 두 사람의 만남을 축복해 드립니다.
일시 : 4월 12일(토) 오후 2시
장소 : 부산 서면 부산상공회의소 예식장

본부동창회 계좌 : 김석백(국민은행) 651401-04-343779



입춘, 우수, 경칩을 풀어내는 생명의 달 2월의 월례회인데 11일 김지남 친구를 우리 곁에서 떠나보냈기에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회의를 시작했다.

마산 본부에서 다녀간 지해경 회장과 김석백 총무, 배종길 친구들의 인사도 전했다. 영면의 길로 ‘지남’ 이를 보내면서 순서 없이 사라지는 길지 않는 우리 인생사. “2만 번의 사나이가 생각하는데 우짜든지 건강관리 잘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즐거움을 오래토록 누리자” 는 회장의 인사와 함께 숯불갈비 집에서 갈빗살 한 점씩으로 술잔을 나누면서 길영이가 ‘지남’ 이를 생각하는 가족사와 병력을 들려주었다.

기욱이, 원일이 친구가 불참을 알려와 섭했지만 늦게라도 달려와 준 진화가 고마웠다. 준태, 창식은 눈과 귀의 고통을 잘 다스리고 있다하면서 대균이, 진형이도 부담 없는 건강으로 함께해 주길 기원했다. 그런가 하면 장우는 귀한 외손녀를 얻고, 청길이는 외손자가 ‘뉴욕대학’ 유학길에 오른다고 싱글벙글했다. 또 효석이는 옛날솜씨로 계란판매업에 다시 전념하고 있다면서 필요한 친구들이나 소개 가능한 곳만 추천해 주면 신속, 정확한 영업을 자신했다.

3월에는 새로운 회장을 추대하는 모임이기에 많은 친구들의 참석을 부탁하면서 월례회를 끝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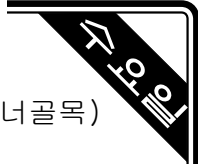
참석자<18명>

강신평 김수곤 김준태 김효석 문호기 박청길 송길영 윤성업 이강복 이의승 이장우 정종길 정현경 조영민 조창식 조창제 최진화 황선치

재경동창회 3월 정기총회



일시 : 3월 19일 오후 6시30분
 장소 : 은행나무(종각4번출구, 종로가15번출구(한일관건너골목))
 안건 : 결산보고, 임원선출, 회칙수정



2013년도 회비납부자<51명>

구진웅 권국주 김건일 김기철 김대식 김덕조 김복남 김영웅 김우철 김종화 김창환 김태조 김학영 노광수 문동영 박광지 박금준 박박종 박용시 박일곤 박진석 박필근 변판석 서종성 성재삼 송일성 송정명 안병근 안병상 안병조 유찬종 이고명 이상진 이상환 이석우 이실 이영우 이홍규 전승치 정영기 제정택 조용석 조재호 조철호 주영국 주유삼 하우정 허양도 허호 홍창우 황일웅(51명)

2014년도 회비납부자<2명>

박필근 송일성

◎ 연회비(10만원)는 아래계좌로 납부하시면 편리, 명확합니다.

계좌번호 : 익환은행 16918-00128-3 임 풍 무

◎ H.P 011.016. 017. 019번이 010으로 변경시 연락주세요.

- 行日 선생이 엮어가는 웃음 속에 묻어나는 삶의 지혜 ①

반갑습니다. 부산에 사는 行日 정 현경입니다.

소중한 회보의 한켠에 마산, 부산, 서울로 흩어져 여생을 즐기고 있는 친구들에게 인생 일흔 줄에 서 있어도 노인이란 생각을 지우고 웃음 속에 묻어나는 삶의 짧은 지혜를 살피는 여유를 갖고자 제공합니다.

아무쪼록 ‘저질이다’ ‘천박하다’를 논하는 어르신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구름 같은 인생, 그 즐거움은 단순 순박해야 하고 좀 모자란 듯이 소탈하고, 너그러운 정겨움과 유머를 가졌으면 합니다.

*

*

❖ 집을 보러 온 손님에게 부동산 중개인이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이 동네는 공기와 물이 좋아 병에 걸려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 정말 멋진 마을이군요.”

그때 마침 장례 행렬이 그들 앞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자 그 중개인은 태연하게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다.

“저런, 저런... 환자가 없어 결국은 의사가 굶어 죽었구먼.”

☞ 이 정도의 재치 넘치는 유머감각이라면 어떤 상황도 여유를 잃지 않고 순간의 상황 판단을 자기편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늘 아름다움을 뽐내던 장미꽃이 호박꽃에게 말했다.

“야, 호박! 호박꽃도 꽃이냐?”

그러자 호박꽃이 대꾸했다.

“야, 그러는 넌 호박이라도 열리냐?”

☞ 호박꽃과 장미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즐길의 대상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은 즐길의 대상일까? 비교의 대상일까?

당연한 이야기지만, 비교하지만 않으면 즐기기에 충분한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너프 세드(Enough Said)인 셈이죠...

※선배님의 노환청력에 큰 보탬이 되겠습니다

독일지멘스보청기 마산센터

055-296-3334

010-4265-3342

청능사 **고 정 우** 원장
(모교45기)

마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인과응보와 윤희의 삶>

배종길

조선 중기 한양에 허정승이라는 분이 살고 있었고, 그에게는 천하일색인 애첩 박 씨가 있었습니다. 애첩은 허정승에게 갖은 정성과 함께 애교를 한껏 부렸고, 허정승도 애첩 박 씨를 무척이나 사랑하여 잠시도 떨어져 있기를 싫어하였습니다.

어느 해 봄, 허정승이 나라의 중요한 회의에 참여하고 며칠 만에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토록 사랑했던 애첩 박 씨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하인들을 불러 간 곳을 물었더니 너무나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그저께 웬 숲장수가 숲을 팔러 왔는데, 둘이서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정승은 어이가 없었지만, 애첩을 잇을 수 없어 백방으로 수소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했습니다. 머릿속에 애첩 생각밖에 없었던 허정승은 마침내 사직서를 내고 그녀를 찾아 집을 나섰습니다. 몇 년에 걸쳐 조선 팔도 방방곡곡을 찾아 헤맸지만 애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허정승의 발길이 오대산 깊은 산골에 이르렀을 때, 길 저쪽에서 웬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이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토록 찾아 헤맸던 애첩, 바로 그 애첩이었습니다. 너무나 기뻐 단숨에 달려갔지만, 애첩은 조금도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후 정승자리도 마다하고 이날 이때까지 당신만을 생각하며 팔도강산 구석구석, 찾아다니지 않은 곳이 없었다오. 과거지사는 따지지 않을 테니 다시 한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나 애첩은 “싫다”고 했습니다.

“그 숲 굽는 이가 나보다 더 좋소?”

“좋습니다.”

“어떠한 점이 나보다 더 좋다는 것이요?”

“하여간 저는 그이가 좋습니다.”

“정녕 돌아가지 않겠소?”

“절대로 안 갑니다.”

절대로 안 간다는 말을 남긴 여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걸음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너무나 허무함을 느낀 허정승은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가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선을 하며 그토록 사랑했던 애첩이 떠나간 까닭을 알고자 했습니다. “왜 그녀가 나를 떠나갔을까? 왜 그녀는 나에게 그토록 냉정해진 것일까? 왜? 도대체 왜?...”

하루는 이 생각을 하며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쳤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애첩이 떠나간 까닭을 생각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상

쳐는 이미 아물었고 잔디밭에는 피가 엉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토록 궁금해 했던 자기와 애첩과의 과거 인연이 확연히 보였습니다.

허정승의 전생은 참선하던 승려로, 어느 날 그의 몸에 이 한 마리가 붙었습니다. 그는 몸이 가려웠지만, 철저한 수행승답게 피를 제공할 뿐 이를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을 받기 위해 신도 집에 초대되어 갔는데, 그날따라 이가 유난히 스님의 몸을 가렵게 만들었습니다. 스님은 몰래 그 이를 잡아 마루 옆에 있는 복실개의 몸에 놓았고, 이는 복실개의 몸에 붙어 피를 빨아먹으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인연이 금생에 와서 허정승과 애첩과 숲장수의 일로 전개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애첩이 되어, 전생의 수행한 공덕으로 높은 벼슬을 한 허정승에게 찾아와 수년 동안을 지극히 모셨고, 허정승과의 인연이 다하자 복실개의 후신인 숲장수를 따라가 살게 되었으며, 허정승은 전생의 살아온 버릇대로 출가승이 되었던 것입니다.

위 글은 불기 2555년 11월<법공양>에 게재된 김현준 법사님의 “인생을 가꾸는 인연법”에 등장하는 例話로, 불교신앙의 근본바탕이 되는 인과응보와 윤회를 잘 드러낸 実話입니다. 보통사람에겐 지어낸 얘기 같지만 허정승처럼 수행으로 눈이 밝아지면 삼생(전생, 현생, 내생)의 모습과 그 연결고리가 훤히 보인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이거나 곱은 일이거나 모두 내가 짓고 내가 받을 뿐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도리에 따라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등 여섯 갈래의 삶을 거듭 반복하는 것이 윤회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생에 꼭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얘기 속의 例처럼 미물인 이가 애첩 박 씨로 복실개가 숲장수로 태어나지만 반대로 사람이 개, 돼지와 같은 축생으로 심지어 지옥에도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생에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곳에 태어나려면 인간의 몸을 받은 금생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았느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무렵에 다소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모든 일에 마무리가 중요하듯 그 간의 행적을 되돌아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챙기는 끝맺음에 도움이 될까하며 댓글을 달아 보았습니다. *

‘산따라길따라<장정지>’는 원고가 넘쳐 이달은 쉽니다

2014년 3월 월례회 안내

월례회

21

부인회

일시 : 3월 21일 오후 6시30분

장소 : 황금농장식육식당
(마산공설운동장 후문입구)

일시 : 3월 21일 낮12시

장소 : 장원갈비(055-296-9733)
양덕 한일로타리

특별요약